

멋과 가락이 살아 숨쉬는 고창

강 욱

자유기고가

선운사와 모양성(牟陽城), 고인돌 유적지, 그리고 동리 신재효(桐里 申在孝)와 전봉준(全琫準)의 고장으로 유명한 고창은 전라북도의 서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서쪽은 전라남도 영광군과 서해, 북쪽은 줄포만을 사이에 두고 부안군과 접해 있다. 동남쪽과 북쪽은 남서 방향으로 뻗어 내린 노령산맥으로 인해 산지성 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중앙은 낮은 구릉성 산지이다.

서해 쪽으로 빠지는 노령산맥의 서쪽 경사면 일대에는 방장산(734m), 문수산(620m), 고산(527m)과 같이 높이가 400m가 넘는 산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산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고창의 젖줄인 인천강에 모여들어 서해로 흘러간다. 하천 유역은 곳곳에 평야를 일구어 놓아서 고창군 전체 땅의 41%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고창(高敞)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확실히 않지만 남아 있는 수많은 고인들의 존재로 미루어 보아 이미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창은 군 단위로서는 우리 나라 최대의 고인돌 밀집지역이다. 고창군은 백제 때에는 모양부리현 또는 모양현이라고 불렸고 통일 신라 시대에는 고창현으로 바뀌어 불렸다. 그 뒤로 조선 왕조 때부터 고창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무장현과 흥덕현을 면으로 흡수하여 열 네 면(面)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곳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농가가 전체 가구의 79%를 차지하는데, 쌀이나 보리와 같은 주곡 외에도 야산을 개발해서 수박, 땅콩, 오이, 차조, 백과, 깻잎, 무우와 같은 특용 작물을 많이 길러 농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해와 맞닿은 4개 면의 지역에서는 8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굴이나 조개, 김 등을 양식한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간척지에는 백만평 정도의 염전이 형성되어 소금을 생산해 고창의 주요

산업이 되고 있다.

고인들은 선사시대에 조영되었던 거석(巨石) 기념물의 일종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널방[墓室]을 마련하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上石]을 올려놓은 무덤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석묘라고 불리며 중국에서는 석봉(石棚) 또는 대석개묘(大石蓋墓), 그외 지역에서는 돌맨(Dolmen)이나 거석(Megalith)으로 지칭되고 있다.

고창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조밀한 고인돌의 분포 지역으로 그 수는 대략 2,000여기가 된다. 고인돌의 주요 분포지로는 고창읍 도산리, 매산리, 월암리, 죽림리, 고수면 황산리, 신기리, 조산리, 아산면 상갑리, 학전리, 운곡리, 무장면 목우리, 해리면 평지리, 심원면 하전리, 월산리, 신흠면 무림리, 가평리, 부안면 용산리, 공읍면 구암리, 상하면 하장리 등 거의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중 아산면 운곡리에는 상석 높이 5m, 가로 7m, 세로 5m 정도의 동양 최대 크기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고창읍 죽림리 일대에는 447기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그 숫자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북방식, 남방식, 지상 석곽식)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어 고인돌의 기원 및 성격 등 동북아시아의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세계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977호 2000. 12. 2).

이 고창 사람들이 고창 자랑스러울 때에

오래 들먹이는 곳이 둘 있으니 그것은 선운사와 모양성이다. 선운사(禪雲寺)는 아산면 삼인리의 선운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선운산은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는 명승지로 일명 도솔산이라고도 한다.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선운산은 도처에 숲이 울창하고 기암과 괴석이 많아 진흥굴, 용문굴, 낙조대, 천마봉과 같은 절경을 이룬다.

이 산에 자리잡은 선운사는 1,500년 전인 백제 위덕왕 24년에 신라 진흥왕의 시주로 신라의 의운 국사와 백제의 검단 선사가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소금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곳에 절을 세울 때에 선운산의 진흥굴, 용문굴에는 산적들이 들끓고 바다에는 해적들이 들끓어 양민들을 괴롭혔다.

검단 선사는 절을 세운 다음 그들을 교화시켜서 도둑질을 그만두게 하고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꾸려 나가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소금을 구워 바다와 육지로 실어내어 장사를 하며 먹고살았는데, 검단 선사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마다 선운사에 소금을 보냈다고 한다. 그로부터 염전 사람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 해마다 이 절에 소금을 보내 준다고 한다.

선운사가 한창 번성하던 시절에는 89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3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렀다고 하며 지금은 도솔암, 석상암, 동문암 등 4개의 암자와 석탑, 그리고 본 절경내에 천왕문, 대웅전, 영산전, 관음전, 팔상전, 명부전, 산신각 등 10여 동의 건물이

있다.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웅전 앞 육층석탑이 있으며 그 이후의 것으로 도솔암 내원궁에 있는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이 있다.

도솔암 마애불은 선운사 도솔암 옆 바위면에 새긴 거대한 마애불상이다. 머리 위 암벽에 사각형 구멍들이 10개 이상 있으며 부러진 목재들이 보인다. 높이는 약 30m, 무릎 폭은 약 10m이며 무릎 아래에는 삼단 형식의 불단이 조각되어 있다. 몸체는 방형이고 양감 없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일자로 도드라진 입술과 함께 얼굴에는 과격적인 미소를 띠고 있다. 보물 제1200호인 이 불상은 월출산 마애불좌상과 비슷한 고려 초기 양식을 지니고 있어 불교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선운사 절 뒤편에는 오백년 묵은 동백나무가 삼천 그루가 넘게 들어서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동백나무 숲을 두고서 이 고창 출신 시인인 미당 서정주는 “선운사 골짜기로/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동백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작년 것만 시방도 남았읍니다/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읍니다”하고 시를 지었는데 그의 시비가 절 초입에 서 있다.

선운사 부근의 특산물로는 작설차와 먹고서 오줌독에 오줌을 누면 그 오줌독이 얹어질 만큼 정력이 좋아진다는 복분자술과 풍천 장어가 있다. 특히 풍천 장어는 바닷물과 강물이 어우러지는 풍천에서 잡아올린 장어인데 맛이 좋고 위장과 간장에

좋다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의 성곽은 산성과 읍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산성과 읍성은 종종 한 쌍을 이루며 보완 관계에 있다. 산을 등지고 산자락에 위치한 마을에는 읍성을 쌓아 도시의 경계로 삼고, 뒷산 정상에는 산성을 쌓았다. 산성이 방어용 성곽이라면 읍성은 행정용 성곽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읍성은 산성과는 달리 허술한 구조물이 대부분이었다.

고창 읍내리에 있는 읍성은 수원 화성과 같이 읍성 자체가 방어 목적을 겸하도록 견고하게 쌓은 성이다. 고창읍성은 조선 초기(1453)에 쌓은 것으로 전체 둘레가 1,684m로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읍성을 모양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백제 때 이곳이 모량부리(毛良夫里)로 불리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창읍성은 읍성이면서도 읍을 둘러싸지 않고 산성처럼 되어 있고 세개의 성문에 저마다 웅성이 딸려 요새화 되어 있으며 성밖에 해자 곧 성을 둘러 판 못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나주진관의 입암산성과 연계되어 호남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진 이 성은 전쟁 때에는 방어요새로 쓰였고 평상시에는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쓰였다.

이 모양성은 여자들의 성벽 뚫기 풍습으로 유명하다. 머리에 돌을 이고 성벽 위를 걸어 세 바퀴를 돌면 자질구레한 병이 없어지고 장수하며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있어서 저승문이 열린다는 윤사월의 초엿새와 스무 엿새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부녀자들의 답성 행렬이 장관을 이룬다. 국

내에서 유일하게 답성 풍속이 전승되고 있는 모양성을 세 바퀴 도는데는 1시간 정도 걸린다.

판소리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멋과 풍류가 어우러진 민중음악이다. 판소리엔 민족의 서정성과 해학, 애환이 스며있다. 고창 읍성에서 나와 읍내로 들어서려면 성 바로 앞에 중요민속자료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리 신재효의 고택이 있다. 1812년에 고창에서 태어나 1884년에 죽은 신재효는 판소리 여섯 마당 곧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 「변강쇠가」의 가사를 정리하고 판소리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다.

신재효는 본디 광대 노릇을 한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 넉넉한 양민인데 풍류를 즐기는 성품을 타고나서 판소리와 함께 민속음악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체계화시켰다. 또한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의 판소리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창을 등장시켜 판소리사와 국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그는 집안에 ‘노래청’을 만들어 놓고 많은 명창들과 사귀고 한편으로는 김세중, 정

춘풍, 진채선, 허금과 같은 제자를 길러냈다.

고창의 명소로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동리 고택은 정면 6칸 반, 측면 2칸의 일자형으로 1850년대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아들이 광무 3년(1899)에 중수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초가지붕인 사랑채만 남아 있는데 건물 남쪽에는 직사각형의 마당이 있고 남동쪽에 우물이 있다.

판소리의 성지인 고창군은 신재효의 업적을 기리고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모양성 앞 동리 고택 바로 옆에 동리국악당과 판소리박물관을 건립해 놓았다. 동리국악당은 1990년에 문을 연 600명 규모의 매머드 건물로 500석의 공연장, 동리기념관, 연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동리대상(桐里大賞)’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문화유산의 고장인 고창에는 볼거리가 많다. 고창읍의 주산인 방장산 자락의 석정리 일원에 조성된 석정온천과 신비한 ‘도깨비 도로’는 온천 휴양과 신비체험을 겸한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